

최근 고유가 배경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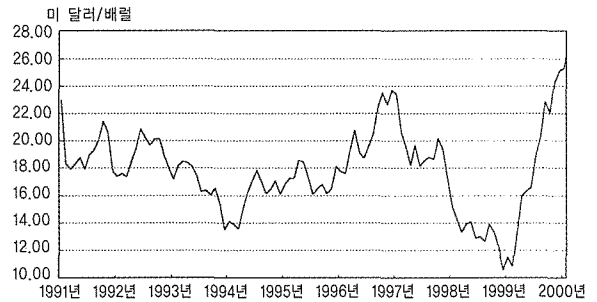
신 현 수

〈 산업연구원 산업계량분석실 수석연구원 〉

1. 최근 고유가의 배경

1999년 3월 OPEC 정기총회의 감산 합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가 올들어 세계경제의 높은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연초 배럴당 24달러 수준이었던 유가는 8월 들어 미국석유협회(API)의 미국 원유재고 대폭감소 발표(1976년 3월 이후 최저수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갑작스런 증산 유보 유로 Brent유와 WTI유가가 30달러 선을 돌파하였다. 9월 10일 OPEC 총회에서 하루 80만 배럴의 증산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지속되고 있다. 9월 22일 미국의 3,000만 배럴에 달하는 전략비축원유(SPR) 방출 결정으로 다소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던 국제유가는 10월 들어서도 중동지역에서의 긴장고조로 다시 30달러 전후의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유가의 지속여부에 전세계 소비국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실정이다.

〈그림 1〉 1991년 이후 3개 원유 평균가격 추이



주) Brent, Dubai, WTI 유가 평균.

이처럼 고유가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유가 완충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원유재고 수준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원유수요국인 미국의 원유재고는 199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세계경제의 고성장으로 원유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OPEC의 추가생산 능력은 한

계에 봉착함으로써 일시적인 수급상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PEC의 증산 합의가 실질적인 증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급상의 요인 외에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투기세력이 선물시장에 가세하여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최근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에 유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어 향후 원유의 순조로운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유가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향후 국제유가의 전망

향후 국제유가의 향방은 세계경기, 원유수급상황, 투기적 수요 해소여부, 정치적 불안요소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 먼저 세계경기는 내년에도 3%를 넘는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원유수요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성장세 둔화로 금년보다는 수요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OPEC의 하루 80만 배럴의 증산결정과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로 금년 동절기의 수급불균형만 적절히 넘길 수 있다면 내년 2/4분기 경에는 비수기의 도래로 수급여건이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고조되고 있는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거나 OPEC국간 이해관계 대립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된다면 중기적인 고유가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1〉 각 기관별 국제유가 전망

(단위 : 미 달러/배럴)

전망기관	전망시기	2000	2001
IMF	2000. 9	26.7	23.1
WEFA	2000. 3/4	25.6	24.0
미 에너지정보국	2000. 10	27.7	24.5

주) IMF는 Brent, Dubai, WTI유가 평균, 미 에너지정보국(EIA)은 미국 수입가격임.

세계 경제예측기관들은 대체로 유가가 금년 4분기에 배럴당 30달러 선을 유지하여 연평균으로는 25~27달

러 선을 유지하다가, 2001년에는 수급불안 완화와 정치적, 투기적 상황의 점진적인 해소로 24달러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가상승의 산업별 영향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경제로서는 국제유가 상승은 바로 국내산업의 생산비 상승으로 직결됨으로써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가상승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은 실질소득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구매력 위축에 따라 국내산업의 생산활동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가상승이 산업별 채산성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해당 산업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생산과정에서의 산업간 투입-산출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유가 상승이 각 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해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이에 따르면 국내 산업 전체로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원자재, 인력 등 총투입액 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투입비중이 2.96%에 달하며, 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국내 산업 전체로는 0.26%의 생산비 상승압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0.36%의 상승압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울러 유가가 작년 대비 60% 정도 상승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유가상승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 2.16%의 생산비 상승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중에는 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석유제품이 5.19% 상승하여 비용상승 효과가 가장 컸으며, 석유화학(0.32%), 시멘트(0.22%), 플라스틱(0.20%), 섬유(0.16%), 철강(0.14%), 고무(0.14%) 등의 산업도 비교적 생산비 상승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산업이 원유 및 석유제품의 투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 효과가 0.1% 포인트에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별 생산비에 미치는 효과(10% 상승시)

(단위 : %, %P)

	생산비증 ¹⁾	원유투입비증 ²⁾	생산비증효과
음식료품	4.22	0.62	0.12
섬유제품	3.46	1.09	0.16
목재·나무제품	0.41	0.85	0.12
종이제품	1.14	1.10	0.14
석유제품	2.04	54.27	5.19
화학제품	4.70	6.59	0.32
플라스틱제품	1.20	1.04	0.20
고무제품	0.48	1.05	0.14
시멘트	1.05	1.99	0.22
철강제품	4.15	0.77	0.14
비철금속	0.82	1.05	0.11
금속제품	1.95	0.96	0.13
기계류	3.55	0.70	0.10
전자부품	3.15	0.21	0.06
통신기기	1.72	0.16	0.06
컴퓨터	0.93	0.10	0.05
가전	0.63	0.24	0.09
정밀기기	0.53	0.35	0.08
자동차	4.71	0.50	0.10
선박	0.81	0.34	0.07
제조업전체	47.64	3.66	0.36
전산업	100.00	2.96	0.26

주 : 1)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개별산업의 생산비증.
2) 총투입액에서 차지하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의 투입비증.

한편,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압력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산업으로, 유가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비용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력 위축에 따른 영향이 생산비

상승 압력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상승이 국내 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1985년과 비교하면, 유가가 10% 상승시 1985년에는 산업전체로 비용상승요인이 1.10%에 달하였으나, 지금은 0.2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전기전자 등 저에너지 소비형 산업이 우리 산업의 주력산업으로 부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산업에서 에너지 소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급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유가상승의 국민경제적 영향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내물가와 무역수지,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 국내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유가상승은 생산과정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생산비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가격의 상승은 이들 제품을 다시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제품의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국내 물가를 상승시킨다.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기업들이 생산비 상승분을 모두 제품가격 인상으로 구매자에게 전가한다면 국내 물가는 0.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수지 면에서는 국제유가의 상승은 원유수입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생산코스트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999년의 원유도입물량에 금년도 원유수입물량 예상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원유수입액은 연간으로 8억~1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입증가, 수출감소, 그리고 국내물가의 상승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6%, 35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4% 내외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